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권XX
파견국가	체코	파견도시	플젠
파견대학	University of West Bohemia	파견기간	2022.9.12~2023.6.30
귀국여부	2023.06.29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University of West Bohemia는 Pilsen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인 Prague 공항, 성, 신시가지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학교 건물의 위치는 학부별로 본 캠퍼스 또는 도시 중심부로 나뉩니다. 일단 캠퍼스는 적당한 사이즈로 경제, 경영학부, 디자인, 공학관련 학과들이 위치해 있으며 건물들은 모던하고 깔끔합니다. 추가적인 시설로 캠퍼스 내에는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작은 체육관과 구내식당, 카페가 있으며 이용금액과 음식의 금액은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교육, 언어, 정치외교관련 학과의 건물들은 도심에 흩어져 있으며 고풍스러우면서 깔끔합니다.</p>
2022-2학기 수업	<p>Basic Czech 1_(추천)_기초 체코어와 문화 수업입니다. (체코 생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기본 단어, 자기소개, 가족소개, 숫자, 주문하는 법, 길 물어보는 법 등을 배웁니다. 수업은 이론 60%, 실습 및 응용 40%로 진행됩니다. 중간고사로 간단한 쓰기, 듣기 시험이 있으며, 기말고사때는 말하기 시험이 추가됩니다.</p> <p>Intercultural Communication for Business_(추천)_수업 명 그대로 각 나라의 문화의 차이와 비즈니스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특징에 관해 배우고 논의하는 수업입니다. 매시간 본인의 나라에 관해 말하거나 자기 주장과 의견을 말해야 하지만, 교수님께서 정말 상냥하셔서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영어를 못하더라도 부담 없이 말하며 즐길 수 있었고, 수업내용이 흥미로워서 추천합니다. 과제는 매 수업 전에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어와야 하며, 읽어 온 내용에 관해 말하고 의견을 내는 식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 조별 프로젝트 발표 두개와 기술 시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p> <p>Business Meetings in English_(추천)_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에 관한 수업입니다. 이론과 문제풀이(표현, 문법, 듣기), 실습(대화)로</p>

	<p>이루어지며, 짧은 이론 외에 학생들 참여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매 수업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시험은 기말에 한번 있고, 직전 수업에 기출 문제를 다 알려주십니다.</p> <p>Marketing on the Internet in English_(비추천)_이론을 바탕으로 특정 사이트 하나를 선정하고, 경쟁사 사이트와 비교하여 특징과 마케팅 기법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발표하는 과제 하나, 직접 비즈니스용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고, 그에 관한 마케팅 기법, 마케팅 방법을 기획하여 발표하는 과제 하나, 간단한 기말시험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제가 흥미로우나 교수님께서 성실한 편은 아니라 수업에 자주 늦으시거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수업에 참석하고 모든 과제를 제출하였어도 발표날 참석하지 않으면 FAIL이었습니다. 또한 발표할 때 압박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p> <p>Statistics_(비추천)_수업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진행되나 범위가 넓고, 시험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범위의 문제들까지 포함되어 출제됩니다.</p>
<p>2023-1학기 수업</p>	<p>Project Budgeting in English_(추천)_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간과 예산 따라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과 이론에 대해 배웁니다. 전체적으로 참여, 미션형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시험은 기말에 한번 있으며, 과제는 매 수업 시간마다 주어지는 것과 최종 과제로 조별 프로젝트 기획 및 발표, 기획안 작성이 있었습니다.</p> <p>Business Financial Management in English_(비추천)_재무관리에 대해 배웁니다. 50%이론과 50% 문제풀이로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노트북 준비해서 엑셀로 계산하며 필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제는 기업을 하나 선정해 재무, 투자, 리스크에 관해 분석하여 발표하는 것이 있으며 시험은 기말 한 번으로 계산문제 없이 정말 쉽게 내주십니다. 그러나 배우는 과정에서 영어로 배우다 보니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4시간 쪽 풀강의로 하다 보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p> <p>Process Management in English_(추천)_물류와 기업 공정 관리에 관한 이론을 배우는 수업으로 학생 중심의 수업입니다. 첫 주를 제외하고 모든 수업이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조별 조사와 발표, activity로 이루어지며 그를 바탕으로 시험을 낸다고는 하셨지만 실상 시험에는 발표 외의 부분도 나오니 각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p> <p>Marketing Applications in English_(추천)_거의 매주 과제가 있으며, 수업은 90% 이론과 10% 직전 과제 소개 및 흥미로운 마케팅과 관련된 최근 뉴스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론에서는 다양한 주제에서의 마케팅 기법과 특징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가는 출석, 매주 과제, 뉴스 발표, 기업 분석 (개인) seminar paper와 발표, 기말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Buddy System 현지학생과 교환학생을 버디로 짝지어 주어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타지 생활 적응에 있어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해 SPEED FRIENDING, ERASMUS PARTY, CITY TOUR, HIKING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매달 많이 준비됩니다.</p> <p>오리엔테이션 출국 전 화상으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한번 진행되고, 입국 후 학과 별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p> <p>교환학생 담당부서_IVA(교환학생 담당자)의 메일을 통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학과 성적과 학과 관련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도움을 줍니다.</p> <p>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Hotline 24시간 운영되며, 체코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로 인해 처리하기 곤란한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전반적인 특징으로 한국에 비해 매우 <u>건조</u>합니다. (9월~5월까지의 빨래가 6시간이면 바싹 마를 정도) 아주 작은 날벌레와 무당벌레 시즌을 제외하면 벌레도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강해서 대체적으로 오전/밤과 한낮의 체감 일교차가 큰 편입니다.</p> <hr/> <p>9월: 더움, 반팔 (대체로 맑은 편이나 하루에도 날씨 변화가 매우 잦았다.)</p> <p>10월&11월: 밤에 조금 쌀쌀하나 한낮에는 매우 가볍게 입고 다니기 적당했다.</p> <p>12월: 0도~8도,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조금 두꺼운 겉옷을 입어야 할 정도였지만, 패딩을 입거나 껴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눈이 가끔 온다. 외투 안에 너무 껴입으면 낮에는 더울 수 있다. 한국 -17도, 한파 시작 소식에 비해 너무 평화로웠고 겨울 치고 따뜻했다.)</p> <p>1월: 한국이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최대 -3도 까지만 내려간다.</p> <p>2월: 일교차 때문인지 체감상 1월보다 더 쌀쌀했다.</p> <p>3월&4월: 일교차가 10도를 넘어가며 한창 한국의 날씨가 풀릴 때도 여전히 좀 추웠다. 우박이 자주 떨어졌으며, 하루에 한곳에서 눈, 비, 우박, 맑음을 다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다채롭고 변덕스럽다.</p> <p>5월: 반팔까지는 아니지만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며, 거의 모든 날이 맑을 정도로 날씨가 좋다. 공원과 강가에 피크닉과 벚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p> <p>6월: 7일 중 6일은 맑으며, 본격적으로 여름에 들어선다. 그러나 최저 12도, 최고 35도, 평균 25도 정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다. 오전 4시에 해가 뜨고, 오후 9시가 한참 지나야 해가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새벽에 약간 쌀쌀하며, 오전과 오후는 따뜻하거나 선선하고, 한낮은 뜨겁지만 습하지 않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전</p>	<p>전반적으로 치안이 매우 좋습니다.</p> <p>우선 건축 특성 상 거리에 cctv가 많거나 밤 거리가 밝은 편은 아니지만 버스가 24시간 운영되어서 그런지 밤이나 새벽에도 혼자 다니는 여자나 학생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음주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보니 취객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하여 강매 또는 과도한 영업행위, 절도범, 홈리스로부터의 위협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현지 학생들이 말하길 밤에는 절대 공원 산책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또한 동아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10개월 동안 타국가들에 비해 인종차별이 극히 적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p> <p>Pilsen에 유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또는 Unicity에 거주하며 일부가 외부 숙소를 구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p> <p>1. Unicity는 학교와 제휴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Studio apartment로 기숙사에 비해 1.5~3배정도 비싸지만 캠퍼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이 좋다는 것이 장점으로 지원이 빠르게 마감됩니다.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룸메이트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해야 합니다.</p> <p>2. 기숙사는 A1~3 & B3 (2방이 화장실과 샤워실 공유 2인1실/3인1실), B1 & B1B & K1 (화장실, 샤워실 층별로 공유), L1&2(추천 안함), B2(싱글, 더블빅/ 더블스몰→두방이 화장실 샤워실 공유) 선택이 가능합니다.</p> <p>저는 B2, double room en-suite, bigger one에서 생활하였습니다.</p> <p><u>전반적으로 깨끗하고 넓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건물들은 모두 오래 되었지만 B2 건물은 최근에 리모델링되어 깔끔하고 방마다 작은 냉장고가 있으며, 층별로 2개씩 적당한 크기의 공용 주방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free 와이파이도 사용가능 합니다.) -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이 B2 기숙사를 선택하고 있어 타국가 친구를 만들고 교류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 공용 구역은 주중 매일 아침 청소가 되고, 짝수 주 월요일&화요일 아침에 침대 시트와 베개 커버를 1층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1층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기 3대, 건조기 2대가 있고 1회 사용 금액은 한국돈으로 환산하여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건조기 성능이 매우 안 좋아서 Tesco에서 건조대 사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 건물 내부에서 음주는 가능하나 흡연은 불가합니다. 특히 연기로 인한 알람 시스템이 예민하여 자주 울려 요리할 때 연기발생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p>- 두 학기 모두 대다수의 유학생 친구들이 주방을 정말 더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5&6층의 깨끗한 주방을 애용했습니다. 심각하게 더럽게 사용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주방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을 그 층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이 분담해야 함으로 혼자라도 최대한 깨끗이 사용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p> <p>- 1층은 호텔로 운영되고 있어 친구나 가족 등이 왔을 때 머무를 수 있었으며, 2인실 1박에 약 3600kc이었습니다. 예약은 관리실에 문의하면 되었고 영어는 안 통하여 구글 번역기 또는 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p> <p>- 기숙사 비용은 매달 15일 전까지 학생증 시스템을 통해 지불해야 했습니다. 학교 포탈->economy->dorm 사이트에서 카드로 금액충전이 가능하며 세탁기, 캠퍼스 식당 이용 시에도 학생증으로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학생식당 내부 기계, 1층 관리실(영어소통불가, 현금만 가능)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p> <p>-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으로 열쇠 잘 챙겨 다녀야 했습니다. 우선 한국과 다르게 전자식이 아니라 깜빡하고 열쇠를 방에 두고 다니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럽친구들은 문 정말 잘 잠그고 다녀서 종종 주방이나 세탁실 잠깐 갔다 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열쇠 분실 시 벌금은 1500kc(약 9만원)이었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O)</p> <p>학교: 저렴하고 나쁘지 않습니다.</p> <p>식당: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편이나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외식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파견 초기에 한국음식과 초밥이 그리워 자주 사 먹었는데 한국의 2~3배 금액에 퀄리티가 정말 많이 떨어지며, 체코 전통 음식들은 별로 한국인 취향인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괜찮은 브런치 카페나 인도음식점,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p> <p>직접 요리: 주방에 전자레인지, 오븐, 커피포트, 인덕션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 가장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마트 물가는 과일, 고기, 유제품, 가공육이 한국에 비해 많이 다양하고 저렴한 편이며 아시안 마트도 많이 있어 김치도 구매 가능합니다. (일반 마트에서도 두부와 쌀은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코의 전형적인 식사에 한국 치즈 스틱과 비슷한 Fried cheese와 냉동 피자가 가격과 퀄리티 면에서 좋아서 간편식으로 자주 먹었습니다. 그리고 Tesco 피칸파이가 정말 맛있었습니다.</p> <p>배달: 저는 주로 Wolt 앱을 사용했는데 배송비, 배송시간 모두 한국과 비슷합니다. 선택지도 많고 만족스러웠습니다.</p>

교통	<p>우선 체코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교통편 딜레이가 드물고 제시시간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p> <p>저는 대부분 트램을 이용하였고 Pilsen 정기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증 발급받을 때 JIS 일체형을 선택하면 교통권 기능도 포함되는 형식이었고 9개월에 약 10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게 Pilsen 내에서는 무제한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라하 1회권/30분 30kc, 필센 20kc입니다.)</p> <p>프라하와 같은 다른 도시로 이동시 Flix bus, RegioJet, Muj vlak 어플을 사용하여 버스, 기차를 예약할 수 있었고 ISIC카드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며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 교통편은 자주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입니다. 또한 독일 뮌헨까지 소요시간 또한 4시간, 왕복 교통비 약 4~5만원 정도로 가볍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만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85 & 110	출국(폴란드 항공, 바르샤바 경유) 입국(대한항공, 직항)
Fees	2	학교 학생증 발급 비용 외에 학교에 대한 지출은 없었음.
보험료 비자	88 (comprehensive/10개월) 18	체코는 국가에서 지정해준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종류가 세 개로 나뉘는데, 저는 가장 많은 범위를 커버하는 'Comprehensive Insurance' 10개월 선택하였습니다. (보험은 무조건 비자신청 전에 신청 기간보다 길게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숙소	28.5*10 (개월) =285	기숙사 B2, 2인실 큰방 선택 시 (전기세&세탁비 포함, 보증금 제외)
식비	45*10 (개월) =450	여행 중을 제외한 식비 및 간식비
교통비	10 14	플젠 9개월 교통비 10개월동안 체코 내부 이동 교통비
책값	3	교재 구매할 일이 거의 없었음
통신비	2.2*10 = 22	O2 통신사, 매달 3G, EU국가+영국, (추가 구매 시 300MB 당 약 1,000원 추가)

생활용품	35	수건, 냄비, 후라이팬, 그릇, 컵, 멀티탭, 칼, 가위, 샤워용품 등
기타1	$30+60+10+40+200+450+80+10+90+260 = 1,230$	여행/이벤트 등 체험 및 여가생활
기타2	110	옷, 기념품, 벌금 등
합계	2,462	대략적인 총 지출

5. 출국 전 준비사항

1. 학교 이벤트 참여 등으로 생각보다 현금을 쓰게 될 일이 많습니다. 환전을 생각보다 많이 해와야 합니다.
2. 한국 식재료가 3배는 더 비쌉니다. 생각보다 자주 찾게 되니 많이 챙겨와야 합니다.
3. winter semester에는 당연히 전기장판 필수이며 summer semester에도 체코는 4월까지 추우니 전기장판은 필수품입니다.
4. 여행 다닐 때 사용할 별도의 가벼운 쪼리 또는 슬리퍼 필수품이며,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가져오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5. 잠깐 나가더라도 여권을 꼭 챙겨 다녀야 합니다. 체코는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시 1,500kc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며 불시에 검문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10개월 중 한번 검문 당한적이 있습니다. 체코는 외국인 벌금에 자비가 없습니다.)
6. 처음 공항에 도착한 후 타는 100번 버스, 버스티켓은 탑승 전 발급받으세요. 티켓은 발급받은 시점으로 시간이 시작되어 현지 학생들이 버스 안 티켓기계에서 발급받으라고 추천해 줍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두배는 넘게 긴 버스 안에 티켓 발급기가 단 두대밖에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초행길인 사람은 기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 공항에서는 버스 탑승객이 많고, 캐리어들로 인해 이동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버스 내부에서 티켓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는 티켓 검문을 자주 하기 때문에 운이 나쁘다면 의도치 않게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1,000kc입니다.)
7. 체코는 학생할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과 버스 티켓은 학생할인이 없습니다. 티켓을 잘못 구매하였다면 지하철 탑승 전이라도 구매 직후 검문당할 수 있으며, 1,000kc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8. ISIC카드 발급받아 오시면 교통편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우선 저는 어디서나 잘 지내고 문화차이에 거부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기 까지 두학기는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유럽 국가를 선택하는 주목적은 다양한 문화 경험과 여행이기때문에 정작 파견간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아 온전히 한나라를 이해하고 자신이 타지생활에 맞는지 판단하기에 한학기는 부족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개월차가 지나고 나서야 제가 유럽에서 문화적으로 편안하게 평생을 사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저는 유럽에서도 코로나 규제 해소 초기에 교환학생을 선택하였고, 유럽 국가 중에서도 인종의 다양성이 적은 편인 체코에, 그리고 수도인 프라하가 아닌 플젠에 파견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2022-2)에 약 180명이 넘는 유학생 중 2명뿐이 아시안,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타국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고,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학기초에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학기(2023-1)에는 타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이 한 명 더 왔고, 중국, 대만에서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문화적으로 외롭지 않아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에 100%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인은 적응수록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더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외국친구들과 어울리고 소통할 기회가 늘어 좋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한 지점은 언어를 대하는 저의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최대한 틀리지 않고 말해야 한다는 강박과 타인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서 교환학생을 선택했고, 오히려 원어민이 아닌 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생활하다 보니 언어를 교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수단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많이 향상시켜주었고,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영어가 제1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크게 실력이 향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나라에서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 보는 것 또한 즐거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여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사람, 규범, 건축 및 예술, 스포츠, 자연과 자원, 지리, 기후, 역사에 있어 타문화의 전반을 관찰하고 겪으며 폭넓은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몇 분야에 있어 학문적으로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할 예정이며, 추후 이와 관련되거나 활용 가능한 직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주말에 스페인 친구와 브런치 먹으러 온 카페 (여기 브런치 맛있어서 이후로도 자주 방문했다.)</p>	<p>프라하 코젤 직영점 폴레뇨와 굴라쉬 (여기 흑맥주가 진짜 최고다.)</p>
	
<p>기숙사에서 해먹었던 평범한 아침식사</p>	<p>버디 시스템 이벤트 중 하나였던 하이킹 (비가 많이 내려서 더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다.)</p>
	
<p>수업 끝나고 대만친구와 뮌헨 옥토버페스트 (맥주, 노래, 분위기,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축제)</p>	<p>프라하 구시가지와 폴젠 광장의 크리스마스마켓 (이후로 독일, 프랑스로 크리스마스 마켓 투어 시작.)</p>



인생 첫 하키 게임 직관
(대학 하키 게임이 자주 열리며, 애프터 파티도 있다.)



국가간 이동에서 주된 교통수단이었던 Flixbus
(야간버스를 많이 이용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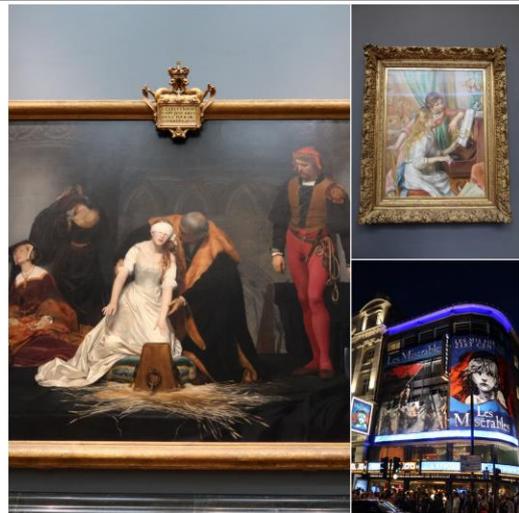
친구들과 20일간의 겨울 유럽 횡단 여행의 시작과 끝
(로바니에미~헬싱키~탈린~바르샤바~베를린~프라하~필
센~뮌헨~인스부르크~베니스~피렌체~로마)



여름이 다가올 즈음 혼자 여행할 때 돛자리만 있으면
어디든 누워 피크닉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University Ball
(개강파티 같은 거라고 들었고, 버디가 표를 구해줬다.)



다방면으로 풍요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평소
좋아했던 작품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감동적인
시간들이었다.